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는 8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을 개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제12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 한국관 커미셔너로 권문성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올해 한국관 주제는 'RE-PLACE-ING'으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를 다룬다. 서울의 변화는 크게 △ 주거의 변화와 △ 공공공간의 변화를 기록했다. 한국관은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유일한 철골 현대 건축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A홀 B홀 C홀 등 총 3개 건물로 구성되며 전체 면적은 205㎡ 안팎이며, 이중 전시 공간은 약 132㎡다. 특히 유리창을 활용해 실내 공간에 자연광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내에 한국형 정자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유일하게 외부 환경에 열려 있다. 이를 활용해 한국 전통 건축의 공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자가 들어선다. 권문성 커미셔너는 "관람객들이 한국관에 들어서 주변 바다와 숲을 느낄 수 있고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람자들이 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관람자가 한국관에 들어와 스마트폰에 자신이 원하는 관람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주거 유닛이 제시된다.

이번 국제 건축전에 참여하는 작가는 신승수 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구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충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하태석 아이아크건축 대표 등 5명이다. 권문성 커미셔너는 "지난해까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주로 작가 개인의 개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 한국관은 전체적인 조화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5년부터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에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모두 25개 국가로 이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관 개관일 8월 28일, 전시는 8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